



# 한국목록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김정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위원장  
jhgim@jnu.ac.kr

목록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원전 목록을 대표하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및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의 목록은 문헌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증거 기록을 위한 수단 즉, 재산 목록의 수단으로 단순히 서지 정보를 기술한 것이며, 오늘날의 목록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목록법이 확립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발전하였다.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이전의 대표적인 목록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1841년 파니찌의 대영박물관 목록규칙, 1876년 카터의 사진체 목록규칙, 그리고 1953년 루베츠키의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를 들 수 있다. 이들 규칙에는 1998년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요구'와 '저작'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함축되어 있었다.

국제 수준에서 서지정보의 유통과 교환을 위한 원칙이 1961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파리원칙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서지기술법(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ISBD)와 AACR(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이 제정되어 있으며, 2009년 국제목록원칙규범이 제시되기까지 각국의 목록 기반이 되어 왔다. 국제목록원칙규범은 파리원칙 시대의 이러한 목록 이론을 '세계의 위대한 목록법의 전통'으로 그 계승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국제목록원칙규범에는 개념모형인 FRBR이 존재한다. 국제목록원칙규범은 이 FRBR과 함께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에 나타난 개념모형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여기서 FRBR의 기본 바탕은 개체-관계 모형이며,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지적 개체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야 하고, 입력된 서지적 개체가 서로 연

결될 수 있도록 관계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국제목록원칙규범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이용자 편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를 입력하느냐, 얼마만큼 입력했느냐에 달려 있으며, 주제명이나 전거, 관계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관계있는 요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2010년 제정된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는 바로 FRBR의 탄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세계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표준이 RDA이다. 즉,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이 아니라 웹 기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매체에 대한 서지기술과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다국적 내용의 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표준서지기술의 역할을 수행해 온 ISBD가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RDA가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도 2013년 7월부터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세미나와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2013년 10월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한국목록규칙 개정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설문조사 분석 결과로 대부분이 접근점 및 전거제어에 관한 세부 규칙 마련, 국제적 목록규칙 동향 수용, 기술요소별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10월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개정관 구성'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으며, 여기서는 목록규칙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 수용, 국제목록원칙규범

을 준용하여 서지기술과 접근점으로 구분, 기존의 서지레코드와 호환성 유지 등을 개정 원칙으로 제안하였다. 목록위원회에서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의 논의 결과 한국목록규칙의 기본 방향은 결국 RDA와 유사한 체제로 가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자료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던 AACR이나 KCR4와는 완전히 다르게 RDA와 같이 자원의 속성과 접근점, 관계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전개 방식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DA에 관한 분석 논문은 이미 국내에도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한국목록규칙의 조항으로 규정하려면 아직도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작업을 목록위원회에서 영역별로 분담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나 전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작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새로운 한국목록규칙이 태어나더라도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BR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RDA도 전형적인 목록기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기존의 내용과 중첩되고 있다. 한국목록규칙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때까지는 전통적인 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FRBR이나 RDA와 같은 새로운 체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